

미디어 클립

공공정책연구소(교육부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작성자: 박태은(박사후연구원)

1. 이번 주 핵심 이슈

• **대표기사 제목: 과기부, 첨단 GPU 4천장 산학연에 공급…"AI고속도로 가동"**

- **선정이유:** 본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 GPU 약 4천장을 산·학·연에 공급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주 대표 기사로 선정하였다. GPU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과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최근 글로벌 AI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연산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에 배분함으로써 AI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AI 기술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정책으로 평가된다.
-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보한 GPU 1만 장 가운데 약 4천 장을 산·학·연 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이달부터 사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총 514건의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159개 과제가 선정됐다. GPU 배분 규모는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기관 312장으로 학계 비중이 가장 높다. 정부는 GPU 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자원을 회수해 재배분할 방침이며, 향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 4천 장 규모의 GPU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을 동시에 촉진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 교육정책 관련 기사문 목록

날짜	제목 (Link)	발행처
2026.03.02	한·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3억달러 글로벌펀드 조성	연합뉴스
2026.03.02	KT, 판사 돕는 '재판 지원 AI' 글로벌 무대 공개… "법률 업무 혁신" [MWC 2026]	데일리안
2026.03.03	수원시, 모든 공직자 AI 교육…"행정 효율화 속도 낸다"	뉴시스
2026.03.03	과기부, 첨단 GPU 4천장 산학연에 공급…"AI고속도로 가동"	노컷뉴스
2026.03.03	한·필리핀, AI·방산·지식재산·교육 등 협력 강화…MOU 10건 체결	뉴시스
2026.03.03	70여 년 제주 기술교육 산실 새로운 도약 꿈꾼다	세계일보
2026.03.03	'이제 4세도 공짜'… 유아 무상교육 50만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3.04	구광모 "기술은 사람 향해야"…AI 인재 직접 키우는 LG	한국경제
2026.03.05	아이스크림미디어, 'AI 디지털 교육자료' 앤어워드 교육 분야 골드수상	뉴시스

과기부, 첨단 GPU 4천장 산학연에 공급..."AI고속도로 가동"

2026-03-03 12:00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

514건 접수 중 159건 선정...학계 2624장·산업계 1288장 배분
3월 추가 공모...중소·스타트업에 4천장 추가 지원

구분	신청			선정			신청 대비 선정 비율
	GPU	서버	비율	GPU	서버	비율	
산업계	4,312장	539대	31.4%	1,288장	161대	30.5%	29.9%
학계	8,600장	1,075대	62.7%	2,624장	328대	62.1%	30.5%
연구계	800장	100대	5.8%	312장	39대	7.4%	39.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4천장을 산·학·연에 공급하며 AI 인프라 지원을 본격화한다.

과기부는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 1만장 가운데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계(중소기업·스타트업 등), 학계(대학·교육기관·산학협력단), 연구계(연구소·연구지원기관 등)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514건(서버 1714대, GPU 1만 3712장)의 수요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59건(서버 528대, GPU 4224장)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배정됐다. 학계의 신청 물량이 8600장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

선정된 기관들은 이달부터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과기부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이 확인될 경우 GPU를 회수해 재배분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달 중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4천장을 추가 배정하고,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도 약 1천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지방 소재 기관 우대와 특정 기업·

기관 쏠림 방지 등 균형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며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돼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478459>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